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감염병 월간 소식 Vol.3(7월호)

코로나 이후의 말라리아



신소연

가톨릭 관동대학교 의과대학 국제성모병원
교수 / 감염내과장 / 감염관리실장

2021년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과 폭염에 국내 말라리아 환자 수가 줄어드는가 싶더니 올해 들어 코로나바이러스 환자 수가 줄어들고 야외활동이 늘어나면서 어김없이 말라리아 환자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중 많은 경우가 열흘 이상 진단이 늦어진 상태로 내원하는데, 국내에서 주로 발생하는 삼일열 말라리아의 경우, 하루는 발열과 오한이, 다음 날은 해열기가 오기 때문에 환자들은 열이 나서 해열제를 복용한 후 증상이 호전되었다고 생각하다가 다음날 열이 재발하여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를 흔히 보게 됩니다.

“해외여행도 가지 않았는데 말라리아라고요? 우리나라에도 말라리아가 있나요?” 하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나라의 말라리아는 고려시대의 기록에도 등장할 만큼 오래된 질환입니다. 해방 이후, 적극적인 박멸사업과 경제성장에 따른 환경 개선으로 말라리아가 급격히 감소하여 1970년대 후반부터는 소멸 국면에 이르렀으나 안타깝게도 1993년 이후 재출현 하여 2000년대까지 증가하였습니다. 이후 적극적인 말라리아 퇴치 프로그램을 통해 다시 감소 중에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는 말라리아 퇴치 단계에 있습니다만, 인천광역시, 경기도 및 강원도 일부 북부지역에서는 매개모기가 주로 활동하는 6월부터 10월 사이에 여전히 말라리아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이에 정부는 2019년 ‘말라리아 재퇴치 5개년 실행계획’(2019~2023)을 마련하여 대응 중이나, 국내 말라리아 환자수가 0건이 되는 것은 아직 요원해 보입니다.

말라리아는 열원충(*Plasmodium*) 속 원충(삼일열, 열대열, 사일열, 난형열, 원숭이열)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급성 열성질환으로 열룩 날개모기속(*Anopheles*)에 속하는 암컷 모기에 의해 전파되는 대표적인 모기매개 질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주로 발생하는 삼일열 말라리아의 경우 권태감과 서서히 상승하는 발열이 초기에 수일간 지속되다가 오한, 발열, 발한 후 해열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이 있는데 이러한 특징적인 발열 패턴이 나타나면 말라리아 감염을 의심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인천, 경기, 강원도 북부 지역에 거주하시는 경우 여름철 원인을 알 수 없는 발열이 있는 경우 말라리아를 조기에 감별하여 빠른 진단을 하는 것이 말라리아 환자의 예후 향상이나 질환의 관리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삼일열 말라리아의 경우 적절한 치료를 통해 완치 가능하며 사망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삼일열 말라리아의 경우 감염된 후 간에서 휴면소체로 잠복하고 있다가 재발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질병관리청 보고에 따르면, 2020년 까지 완치검사 1,546건 중에 10건의 재발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약제 내성보다는 말라리아 약제의 불규칙한 복용과 불충분한 용량에 의해 재발한 것으로 의심됩니다.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에서는 말라리아 치료제 효능평가를 위해 발병 후 최소 28일동안 추적조사를 권장하고 있으며, 질병관리청에서는 말라리아 환자 중 불충분한 치료사례에 의한 새로운 환자 발생 역제를 위해 치료 종료 30일 후 완치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말라리아의 퇴치에는 환자관리 뿐 아니라 매개모기의 모니터링 및 방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부터 말라리아 매개모기 조사감시사업을 진행하여 매개모기 발생 현황 및 원충 감염률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2021년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매개모기내 원충 비율의 검출건수는 대폭 감소하였으나, 매개모기 밀도는 더 증가하여 다소 우려됩니다.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유행이 감소세에 들어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야외활동이 늘어난 2022년에는 사람들의 모기와와의 접촉 횟수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22년의 말라리아 발생 양상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코로나 이후 일상회복 중인 지금, 말라리아 경보 및 안내 자료를 통해 말라리아 위험지역에 대해 잘 인지하고, 위험지역에 거주하거나 방문하는 경우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개인보호에 주의하며, 발열 등 말라리아 의심 증상이 있을 시 지체 없이 의료기관을 찾아 진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